

古代都市 폼페이와 도시形成과 地域分화

남 영 우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 서론

폼페이는 로마의 역사와 비교될 만큼 오래된 고대도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고대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에서는 평범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다. 이탈리아의 고대민족 중 하나였던 오스코족은 기원전 8세기에 캄파니아 지방의 베수비오산 기슭에 폼페이라는 취락을 건설하였다. 이 무렵, 그리스로부터 이주해 온 식민자는 도리아식 신전을 폼페이시 남부의 삼각포럼(그림 1의 제 VIII지구 7구역)에 건설한 바 있다. 폼페이는 스타비아의 노라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중간지점일 뿐만 아니라 나폴리만과 내륙부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폼페이는 그 주변에 펼쳐진 광활한 포도밭과 올리브 과수원으로부터 와인과 올리브유 등의 특산품을 수출하기 위한 항구로 이용되었으며, 어패류로 만든 소스류와 용암을 재료로 한 輕石 등도 이 항구를 통하여 타지역과 교역을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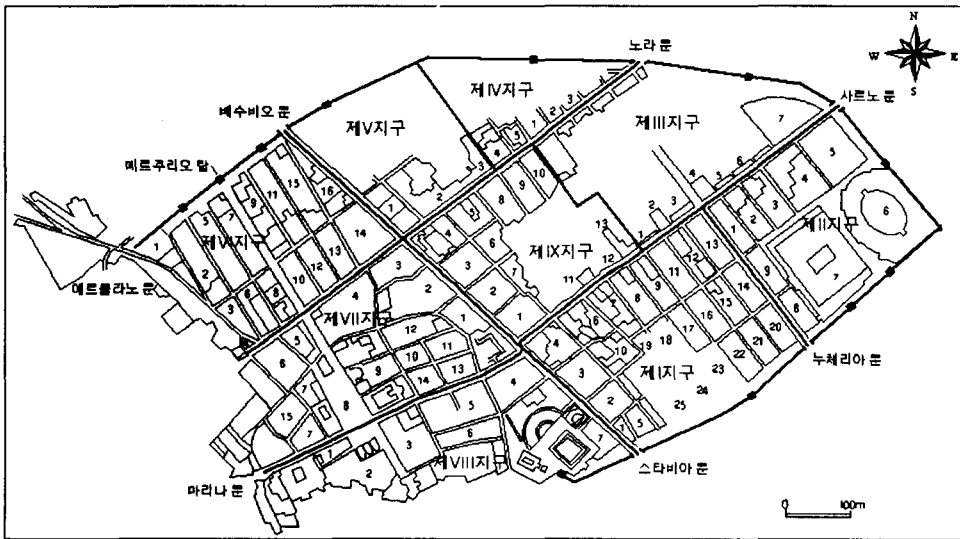


그림 1. 폼페이의 지구(regione)와 블록(isulae) 구분

폼페이는 취락의 형성과 함께 주변강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되었다. 가장 먼저 폼페이를 정복한 것은 쿠마였으나 에투루리아족에게 점령당하였다. 그 뒤를 이어 기원전 5세기 말에 폼페이는 삼니타족에게 정복당하였는데, 「폼페이」라는 地名이 생긴 것은 기원전 4세기에 그들이 이 지역에 정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의 일이다. BC 89년에 로마군에 패배하면서 폼페이 시민은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부여 받았다.

AD 79년 8월 24일에 발생한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로마의 自治市였던 폼페이는 최후를 맞이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지하에 묻혀 있었다. 폼페이 유적은 공식적으로는 18세기에 발굴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때까지 유적의 존재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 일대에 고대도시가 매몰되어 있다는 인식은 이미 17세기 중엽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하에 묻혀있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행위는 일반화되지 않았었다. 결국 폼페이는 학문분야로서의 고고학이 성립될 무렵에 발굴작업이 본격화되었다는 점과 화산폭발에 의한 매몰유적으로 시간이 멈춘 상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폼페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도시의 형성과정과 지역분화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구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1996년 7월과 2003년 8월의 두 차례에 걸친 현지답사와 발굴조사보고서는 물론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고대도시 폼페이를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폼페이에 관한 연구는 고고학을 비롯하여 건축학 및 고고미술학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으나, 지리학 및 도시학의 분야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폼페이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매몰된 순간에 정지된 시간 속에서 매장되었던 도시이므로 역사의 단면에서 고대도시를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폼페이의 도시형성과 도시계획

1) 도시형성과정

폼페이의 도시기원과 도시형성과정을 파악하는 일은 다른 고대도시와 달리 유적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용이한 편이다. 특히 도시의 경계를 알려주는 성벽부분의 유적은 복잡하고 세밀한 건축물이 적기 때문에 발굴작업이 간단한 편이다. 또한 고대도시로서의 폼페이의 기원은 도시건설과 동시에 대규모로 진행된 공공건물이 성벽공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폼페이의 도시형성에 관한 연구 가운데 G. Fiorelli가 제기한 「원초적 도시계획설」이 인정을 받지 못한 이후에는 두 종류의 학설로 나뉘어졌다. 즉 F. Haverfield가 주장한 「폼페이 다단계확대발전설」과 A. Maiuri에 의해 제기된 「폼페이 동시형성설」이 그것이다. 전자는 시가지 남서부 포럼의 주위를 환상으로 둘러싼 Vico dei Sopratani, Via degli Augustali, Vico del Lupanare, Via dei Teatri의 4개

도로 내부를 가장 최초단계의 시가지로 간주하며 이들 4개의 도로를 초기 성벽의 흔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후자는 성곽의 축성연대에 관한 編年觀에 근거하여 축성시기를 기원전 6세기 에트루스코 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단계확대발전설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폼페이가 삼니타족과 로마시대에 이르러 AD 79년 멸망하기까지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아간 시가지 간의 연속성 및 도로망의 부정합성과 결부시켜 볼 때에 다단계확대발전설이 타당함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폼페이는 지형적 여건상 용암대지의 말단부로부터 동북쪽의 충적평야부로 확대되어 나갔을 것이므로, 폼페이 동시형성설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 도시계획

폼페이는 대부분의 로마도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정교하게 계획된 도시임이 여러 학자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폼페이의 도로망과 공공시설은 위계적 배열과 기하학적 배치에 입각하도록 설계되었다. 고대로마의 도시계획은 현대의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고 국지적 교통 수요·사회적 여건·경제상황·환경 등에 따라 공간을 조작할 수 있게 설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슐레(*insulae*)라 불리는 폼페이의 블록은 유적지의 지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배열되었다. 즉 폼페이의 시가지를 이루는 블록은 전체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한 서쪽에서 동쪽으로 경사진 토지에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고, 특히 제 I 구역과 제 VI 지구는 남사면 방향의 토지를 따라 구획되었다. 이에 대하여 Haverfield는 고대로마의 도시계획에 기하학적 시스템이 엄격히 적용된 것은 사실이나, 포럼 주변의 제 VII 지구와 제 VIII 지구가 초기 선사취락이었기 때문에 격자상 블록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문명화된 도시사회의 상징 중 하나를 기하학적 격자상의 도시 계획이라 인식하였다. 그러나 폼페이는 도시구조가 도시계획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간의 무작위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고, 사회·경제적 수요에 따라 공간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폼페이의 도시 공간은 계획된 실재라기 보다는 사회적 산물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3. 폼페이의 지역분화

1) 토지이용의 분화

M. Weber가 지적한 것처럼 로마문화는 도시문화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 반도에 도시를 건설한 선구자는 그리스인과 에투루리아인이었으며, 폼페이는 그와 같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한 도시이다. 폼페이의 도시내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면서 토지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제한된 공간내에서 점증하는 공간수요는 필연적으로 토지이용의 변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변화는 기원전 2세기 이후 서서히 시가지가 확대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분야에서도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화는 주택도시화와 더불어 상업도시화 및 공업도시화가 병행되는 양상을 띠었다. 폼페이의 주요도로에 면한 부지는 상점과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들은 도시의 중심부로부터 외곽부로의 순차적 확대가 아닌 비지적 확대(sprawl)의 양상을 보였다.

2) 주거지역의 분화

고대도시의 공간구조는 시민의 사회적 선택·관습·제도 등과 그것을 만든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폼페이의 주거지역은 도시구조와 도시민의 생활을 파악케 하는 열쇠가 된다. 더욱이 고대도시로서는 비교적 잘 정비된 폼페이 유적지에서 학자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주택이다. 주택은 거주자의 지위와 부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초한 주거지역의 분화패턴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규모별 분포를 고찰하고 주택의 질적 기준의 하나인 아트리움과 列柱廊의 유무를 지표로 주거지역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제 1유형은 저급주택에 속하며, 제 4유형은 고급주택에 속한다. 그리고 제 2유형은 중급주택에 가깝고, 제 3유형은 고급주택이거나 중급주택에 해당한다. 이들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분석한 결과, 고급주택은 지역적으로 분화되지 않은채 광역에 걸쳐 분포하며, 저급주택은 중앙포럼과 삼각포럼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고급주택이 城門과 연결되는 통과교통로를 따라 분포하는 것은 엘리트들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며, 고급주택이 국지화되지 않은 것은 엘리트 간의 정치적 경합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3) 근린지역의 분화

근린(neighbourhood)이란 일반적으로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직접적인 면식관계로 맺어진 도시지역의 일부분을 가리킨다. 하나의 근린에는 개별적인 下位文化가 존재하며, 이것이 주민의 사상과 정체성을 형성케 하는 매체가 된다. 결국 근린의 개념이 관심있는 대상의 대면접촉과 교류의 공간적 범위라면, 근린단위(neighbourhood unit)를 설정하는 일은 기능지역적 지역구분을 시도하는 것과 다름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린단위의 분석지표가 되는 25개의 사당과 38개의 공동수도를 대상으로 그들의 분포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폼페이에는 38개의 기초권역이 존재하며, 이는 종교시설인 사당보다는 공동수도의 분포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근린단위의 공간적 범위는 로마도시의 행정구역단위 중 vici가 아닌 vicus에 가까우며, 이러한 사회공간은 이질적 주민들로 구성된 균형화근린(balanced neighbourhood)이라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대도시와 현대도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도시구조의 본질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堀賀貴, 2001, “ポンペイ住宅の高層化と建築構造,” *ローマと地中海の展開*, 晃洋書房, 京都, 80~97.
- 岩井経男, 2000, *ローマ時代イタリア都市の研究*, ミネルヴァ書房, 京都.
- 浅香正, 2001, *ローマと地中海世界の展開*, 晃洋書房, 京都.
- 青柳正規, 2001, *POMPEI E I SUOI ABITANI*, 朝日新聞社, 東京.
- 坂井聡, 2001, “79年の下に眠る歴史: ポンペイ下層発掘調査の語るもの,” *ローマと地中海世界の展開*, 晃洋書房, 京都, 60~79.
- Andreau, J., 1973, *Histoire des séismes et histoire économique: le tremblement de terre de Pompéi*, *Annales ESC*, 28, 369~395.
- Cassani, S., 2002, *Soprintendenza Archeologica di Pompei, eleta napoli*, SAMA, Quarto, Napoli.
- Castrén, P., 1983, *Ordo populusque pompeianus: Polity and Society in Roman Pompeii*, *Acta Instituti Romani Finlandiae*, vol. VIII, Roma, 25~27.
- De Caro, S., 1985, *Nuove indagini sulle fortificazioni di Pompei*, *Annali dell'Instituto Universitario Orientale di Napoli*, 7, 75~114.
- De Caro, S., 1992, *Lo sviluppo urbanistico di Pompei*, *Atti della Società della Magna Grecia*, 3, 67~90.
- Della Corte, M., 1965, *Case ed abitanti di Pompei*, Oxbow, Napoli.
- Étienne, R., 1987, *Pompéi, la cité ensevelie*, Motovun, Napoli.
- Etani, H. et al., 1997, *Preliminary Reports: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at Porta Capua, Pompeii, 4th Seasons*, *OpPump*, VII, Kyoto, 148~150.
- Laurence, R., 1994, *Roman Pompeii*, Routledge, London.
- Maiuri, A., 1960, *Alla ricerca di Pompei preromana*, Ambienti, Napoli.
- Nishida, Y., 1991, *Measuring structures in Pompeii*, *Opuscula Pompeiana*, 1, 91~102.
- Richardson, L., 1988, *Pompeii: An Architectural History*, Harmondsworth, Baltimore.
- Robinson, D. J., 1997, *The social texture of Pompeii*, in S.E.Bon and R.Jones(eds.) *Sequence and Space in Pompeii*, *Oxbow Monograph 77*, Oxford, 135~144.
- Zevi, F., 1982, *Urbanistica di Pompei, La regione sotterrata dal vesuvio*, *Studi e prospettive*, Napoli, 357~368.
- Varone, A., 2000, *Pompeii, i misteri di una città sepolta*, *Atti del primo seminario*, Roma.
- Wallace-Hadrill, A., 1994, *The urban texture of Pompeii*, in T.Cornell and K.Lomas(eds.) *Urban Society in Roman Italy*, London, 65~90.